

CULTURE NOTE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T. 1544-6711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52722 215, Gangnam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청렴한 당신이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합니다.

문화
노트
즐거움 내일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대공연장 로비
● 야외특설무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7

July

SUN	MON	TUE
5	6	7
12	13	14
19	20	21
26	27	28

8

August

SUN	MON	TUE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31	

WED	THU	FRI	SAT
1	2	3 ● 형 앤 상 제6회 정기전 (~7일)	4
8	9 ●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	10 ●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 ● 2020 진주ART FORUM 아름다운 동향전(~14일) ● 참진주수채화회 13회 정기전(~14일)	11 ●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
15	16	17	18
22	23	24 ● 제71회 진주미술 협회전(~28일)	25
29 ● 7월 문화가 있는 날 - 굿데이 남성 중창단	30	31	

WED	THU	FRI	SAT
			1
5	6 ● 무견 서원표전(~11일)	7	8
12 ● 이철수 판화전(~9월 8일)	13	14	15 광복절 ● 2020 개천미술대상전 1차심사 및 본심사
19	20	21 ● 2020 개천미술대상전 2차접수 및 심사(~22일)	22
26 ● 8월 문화가 있는 날 - 열쟁이 유씨	27 ● 제12회 진주여성수채화 회전(~31일)	28	29

※ 문화노트에 기재된 모든 공연 및 전시의 일정 · 출연진 ·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 이철수 판화전 — 너 하나를 위해, 오늘은...

8. 12. - 9. 8.

제2전시실

월요일 휴무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우리들의 길

당신의 길을

함께 걸으면

언젠가

우리들의 길이라

부르게 되겠지

—이철수(200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2020 이철수 판화전—너 하나를 위해, 오늘은...> 전시가 경남도민을 찾는다.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시대의 예술가이자,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목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작품으로 진행된다. 이철수 선생은 1981년 관훈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이철수 판화전>을 개최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1980년대 내내 판화를 통한 현실 변혁운동에 앞장섰으며, 1988년 무렵, 자기 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판화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선가의 언어방식을 끌어 온 촌철살인의 화제들은 물론, 시정이 넘치는 짧은 글들이 어우러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의 판화는 '판화로 시를 쓴다'는 평판을 들으며, 갈수록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와 글씨, 그림이 한 화면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전통적 회화를 현대적 판화로 되살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의 새로운 판화들은 '삶이 곧 그림'이라서,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만 아름다움을 채워 갈 수 있으리라는 작가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너
하나를
위해
오늘은
우리가
있는
것



“민들레의 밤하늘”

이철수
2024

2020 여름공연 예술축제 7.9. - 7.11.

야외특설무대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산에 밴드, 한영애 밴드
라틴 팩토리, HG 펑크트로닉
양상블 블렌딩, 밴드 곰치, 허쉬밴드

한여름 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경남문화예술회관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가 시작된다. 이번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는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넓은 중앙광장에서 진행된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문화예술의 향연! 벌써부터 그 열기가 뜨겁다. 먼저 9일 개막일에는 △강산에 밴드 △라틴 팩토리, 10일에는 지역예술단체인 △양상블 블렌딩 △밴드 곰치 △허쉬밴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한영애 밴드 △HG 펑크트로닉이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과 더불어, 아트마켓 역시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할 예정이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갖춘 다양한 물건들은 물론, 맛있는 주전부리까지 함께 판매된다.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는 경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생활 속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한꺼번에 날려 보내길 바란다.

2020 SUMMER PERFORMING ARTS FESTIVAL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감
방방곡곡

뮤지컬 팬레터

9.4. - 9.5.

금 19:30
토 14:00, 19:00

대공연장

V 80,000
R 60,000
S 50,000
A 40,000

14세 이상

탄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환상적인 선율의 음악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은 뮤지컬 <팬레터>가 경남 도민을 만난다. 뮤지컬 <팬레터>는 1930년대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들인 이상과 김유정의 에피소드를 모티브 삼아,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모던 팩션(Faction) 뮤지컬이다. 또한 실존했던 순수 문학단체 구인회를 모델로, 문학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경성시대 문인들의 모임 '칠인회'를 등장시켜 당대의 모던한 시대적 분위기와 예술적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 낸다. 당대 최고의 천재 소설가 '김해진' 역에는 김경수와 이규형이 출연하며, 문인들을 좋아하고 시와 소설에 푹 빠져 있는 작가지망생 '정세훈' 역에는 백형훈과 문성일이 관객들의 곁을 찾는다. 문학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이 강한 여성으로 비밀에 싸인 천재 여류작가 '히카루' 역에는 소정 화와 김히어라가 열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대의 모던한 시대적 분위기와 예술적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낼 칠인회 멤버 '이윤', '이태준', '김수남', '김환태'는 정민, 양승리, 이승현, 권동호가 각각 역할을 맡아, 극대화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1930년대 문인들의 치열한 예술혼을 담은 뮤지컬 <팬레터>를 9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자.



국립합창단 베토벤 장엄 미사

-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라

9. 24.

목 19:30

대공연장

V 40,000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지휘 윤의중

국립합창단

시흥시립합창단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강훈

베이스 최종우

베토벤 최고의 명작을 만나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9월 24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합창단 〈베토벤 장엄 미사〉 공연이 열린다. 이날에는 국립합창단과 시흥시립합창단,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강훈, 베이스 최종우가 함께 무대를 선보인다.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는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 창단되었다. 국립합창단은 합창예술운동을 위한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의 합창 수준을 아마추어에서 예술적 차원으로 도약시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합창대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바흐의 '마태 수난곡', '요한 수난곡' 등 유명 합창곡을 국내에 소개했으며, 르네상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방법 및 해석법을 통해 합창음악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합창곡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국립합창단과 함께 하는 시흥시립합창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최상의 하모니로 선보이며, 각종 연주회를 통해 시흥의 문화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송성철 지휘자를 필두로, 40여명의 젊은 단원들이 함께하여, 정통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 뮤지컬 등 폭넓은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경제와 문화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한국경제신문이 2015년 창단한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민간 오케스트라 모델이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음악가들에게 능력과 비전을 펼칠 장을 제공하는 신개념 오케스트라를 지향하고 있다.

베토벤 장엄 미사

장엄 미사곡은 베토벤에 의해 1823년에 작곡되었으며, 182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고, 1827년 출판되어 베토벤의 후원자였던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었다. 1812년 청력을 완전히 잃은 베토벤은 경제적 문제 등 어려운 상황이 겹치며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나, 1818년 건강이 호전되면서, 장엄 미사곡의 첫 뼈대를 만들었다. 이후, 5년의 고된 작업 끝에 1823년 52세 되던 해에 이 곡을 완성했다. 장엄 미사곡이라고 번역되는 미사 솔렘니스(Missa solemnis)는 사제가 정식으로 부제와 복사를 거느리고 행해지는 성대한 미사이다. 너무도 고뇌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베토벤, 그가 장엄 미사곡을 자신의 작품 중 최고라고 할 만큼, 이 작품은 종교 음악의 대표적 명작이다. 곡의 구성은 독창자 4명, 혼성합창과 오르간 협연이 있는 관현악으로 편성되며, 키리에(Kyrie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글로리아(Gloria / 대영광송), 크레도(Credo / 신앙 고백), 상투스(Sanctus / 거룩하시다), 아그너스 데이(Agnus Dei / 하느님의 어린 양) 등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동극장 궁: 장녹수전

10. 15.

목 19:30

대공연장

균일 30,000

8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재단  정동극장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선의 위험한 신데렐라, 예인 장녹수를 만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를 복원하고, 근현대 예술정신을 계승코자 1995년 개관한 정동극장이 <궁: 장녹수전>을 통해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궁: 장녹수전>은 조선 최고의 기녀이자 욕망의 화신으로 낙인찍힌 '장녹수'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녀가 탐한 권력 이야기와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예를 상상하여 재구성한 창작극이다. '조선의 악녀', '희대의 요부' 등으로 불리어 온 장녹수. 정동극장은 장녹수를 부르는 수식어에 '예인(藝人)'을 덧붙이고자 시도한다. 장녹수와 연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진 문화 콘텐츠 속에서 장녹수가 '요부'로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 <궁: 장녹수전>은 장녹수가 조선 최고의 예인이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란 점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 조선의 왕 중 가장 풍류를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연산'과 왕위에 즉위하지 못한 왕자이자, 장녹수의 조력자인 '제안대군' 등 입체적 캐릭터들의 향연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 기방문화와 민가의 놀이문화, 그리고 궁중 연희의 모습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최고의 예인, 장녹수가 선사하는 우리 춤의 아찔한 매력을 오는 10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자.

문화
공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정동극장 '궁: 장녹수전'>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뮤지컬 베르테르

11. 13. - 11. 14.

금 19:30
토 14:00, 19:00

대공연장

V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8세 이상

식지 않는 사랑의 열병, 세기를 초월한 사랑의 감성을 담은 뮤지컬 〈베르테르〉가 11월 경남도민을 만난다. ‘베르테르’와 ‘롯데’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베르테르〉는 지난 2000년 초연 당시 유례없던 팬덤 문화를 형성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베르테르〉는 대한민국 최고 실력파 배우들이 캐스팅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고 있다.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은 절박한 사랑의 열망을 표현하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무대는 각 인물의 심리변화를 여실히 담아낼 예정이다. 이번 뮤지컬 〈베르테르〉는 오리지널 베르테르 엄기준과 명품 뮤지컬 배우 카이, tvN ‘더블 캐스팅’의 최종 우승자 나현우에 이어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연석과 믿고 보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한 규현이 캐스팅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그 어느 시즌보다 다양한 매력의 베르테르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은 베르테르는 누구일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1. 26. - 11. 27.

목 19:30

금 19:30

대공연장

V 70,000

R 50,000

S 40,000

A 30,000

48개월 이상

사랑스런 음악과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한 무대,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이 11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최고의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짜임새 있는 안무와 구성을 바탕으로, 국립발레단의 스타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함께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는 1891~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실극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독일작가 E.T.A. 호프만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왕'을 주제로, 발레곡을 만들었다. 이 곡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종합예술인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연말이면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족 공연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국립발레단에서 선보이는 <호두까기인형>은 러시아 그라스나다르 극장에서 직접 제작해 온 무대세트와 화려한 의상 및 소품으로 볼쇼이 극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마리와 왕자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2막에서는 인도와 러시아, 스페인 등 각국 인형들이 '축하의 춤'을 선보이는데, 각국의 춤을 비교하는 것 역시 남다른 재미를 안겨줄 것이다. 다가오는 연말, 차이콥스키의 달달한 음악세계와 국립발레단의 아름다운 비상을 만나보자.



극단 실험극장 연극 에쿠우스

12. 3. - 12. 4.

목 19:30

금 19:30

대공연장

균일 30,000

17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he Korea Cultural & Arts Commission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위원회 극단 실험극장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대를 초월한 불멸의 명작, 연극 <에쿠우스>가 12월 경남도민을 찾는다. 영국에서 1973년 초연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에서는 1975년 극단 실험극장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후, 국내 최고의 연출가들이 새로운 해석과 다른 시각, 그리고 그들만의 무대 미학을 선보이며 공연하고 있다. 이번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연극 <에쿠우스>는 극단 실험극장이 함께한다. 원작 <에쿠우스>는 연극 <아마데우스>의 원작자로도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Peter Shaffer)의 대표작으로, 현대인의 영원한 화두인 신, 인간, 섹스에 대한 고민과 인간의 잠재된 욕망에 대해 심도 있게 그려내며, 열정과 광기, 원시적 욕망과 그에 반하는 정상의 사회에 대한 대비 또한 극명하게 보여준다. 극단 실험극장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무게와 심도 깊은 질문을 바탕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치밀한 스토리와 탄탄한 전개를 통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율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배우들의 완벽한 앙상블과 원작에 가장 가까운 무대 구성은 또 한 번의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문화
공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극단 실험극장 '연극 에쿠우스'>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 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악단광칠 미치고 팔짝 콘서트 - 신들의 파티 12. 16.

수 19:30

대공연장

균일 20,000

8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ADG7** 악단광칠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깨가 절로 들쭉들쭉! 악단광칠의 <미치고 팔짝 콘서트-신들의 파티>가 열린다. 전국을 넘어 해외 관객까지 사로잡은 악단광칠이 더욱 업그레이드 된 '흥'으로 경남도민을 찾는다. '현대적인 굿판'을 표방하며, 전통을 넘어 다방면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악단광칠, 황해도 지역의 독특한 음악 어법을 담아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고 있다. 전통음악이 낯설어도, 가사를 몰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악단광칠의 <미치고 팔짝 콘서트 -신들의 파티>를 오는 12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자.

문화광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악단광칠 '미치고 팔짝 콘서트-신들의 파티'>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월 문화가 있는 날 굿데이 남성 중창단 7. 29.

수 19:30

대공연장 로비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피아노 이해인

테너 전용진, 안예찬, 강호곤, 강원석

베이스 추성민, 김한, 류동호, 강동원

굿데이 남성 중창단은 '하나로 어우러진 소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경남 지역의 성악가들이 뜻을 모아 창단되었다. 클래식에서 뮤지컬, 가요,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들만의 색깔로 선보이며, 많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 출발
- 사랑이라는 이유로
- 바람이 불어오는 곳
- 별
- 뱃노래
- 한뼘
- 꽃 피는 날
- Open Arms
- 지금 이 순간
- Funiculi Funicula





8월 문화가 있는 날 염쟁이 유씨

8. 26.

수 19:30

대공연장

균일 10,000

8세 이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상남도문화재단

관객을 흠뻑 젖게 만드는 1인 15역의 신들린 듯한 연기가 온다! 그의 오른발 걸음에 웃음이, 왼발 걸음에 눈물이 흐르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가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유씨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인생을 엿보면서, 배꼽 빠지게 웃기도 하고, 한구석에 울컥 올라오는 감정에 눈가의 촉촉함도 느끼게 한다. <염쟁이 유씨>는 2006년 국립극장이 주최한 시선집중 배우전 개막작에 선정된 이후, 관객은 물론 관련 기관 및 단체, 언론사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5년간 꾸준히 대학로와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68만 명이 관람하며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자리매김했다.

줄거리

유씨는 조상 대대로 염을 업으로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난 염쟁이다. 평생을 염을 하며, 여러 양태의 죽음을 접하다 보니, 그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또한 남다른 유씨.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일생의 마지막 염을 하기로 결심하고, 몇 해 전 자신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에게 연락을 한다. 유씨는 기자에게 수시, 반함, 소렴, 대렴, 입관에 이르는 염의 전 과정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어왔던 사연들을 이야기 한다. 조폭 귀신과 놀던 일, 오로지 장삿속으로만 시신을 대하는 장의대행업자와의 관계, 자신이 염쟁이가 되었던 과정,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부친의 시신을 모독하던 자식들의 한심한 작태,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야기까지...